

비치 사커(Beach Soccer)의 발달과 문화적 배경

박경호* 제주대학교

The Development and Cultural Background of Beach Soccer

Park, Kyoung-Ho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analyze the concept, development and cultural background of Beach soccer. After an objective description through inter-subjective discussion based on literature review from investigation of historical data,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retrieved. First, Beach soccer has been official sport after established rule since 1992. It has also developed while holding the World Championship and the World Cup by support of the FIFA and BSW. Second, Beach soccer was cultural legacy by played Mulato who has encountered racial discrimination in society of Brazil, have an geo-ecological effected for cities was developed around the sandy beaches in east coast.

논문정보

논문투고 : 2014. 7. 18.
논문수정 : 2014. 8. 12.
게재확정 : 2014. 8. 22.

Key words :

beach soccer,
inter-subjective
discussion,
FIFA,
BSW

* E-mail : kyongho1@hanmail.net

1. 서론

스포츠가 인류 문화의 큰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의 스포츠는 인류가 발생시켜 온 정치, 경제, 사회, 역사의 다양한 요소들을 내포하며 진화해 온 복합적인 문화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의 본질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속에는 인류가 형성해 온 특징적인 문화 요소가 잠재되어 있을 것이며 이것은 인문학적으로 스포츠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인류 문화의 복합체인 스포츠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왔으며 지속적인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성장을 반복하고 있는 스포츠 중 하나가 축구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 예컨대 전 세계 인구의 1/6이 축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FIFA 가입국은 203개 국가로 UN 가입국인 193개국보다도 많은 수치이다(서강목 외, 2014).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개막전이었던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경기는 전 세계 4억 2900만 명이 시청했으며 영국과 이탈리아의 경기는 두 국가를 합쳐 약 2억 7천 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스포츠조선, 2014.6.21). 이만큼 축구는 지구상의 스포츠 중 최고의 단일종목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단일 종목으로서 축구의 이러한 눈부신 발전은 축구 관련 산업의 발전은 물론 관련 종목의 다양화에도 기여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5:5 형태의 축구인 풋살(Futsal)과 비치 사커(Beach Soccer)이다. 두 종목 모두 FIFA에서 주관하는 국제대회가 있을 정도로 발전이 가속화되어 왔고 전 세계 속으로 확산되고 있다.

축구와 유사한 형태의 스포츠 종목 중 비치 사커는 잔디가 아닌 해변의 모래 사장위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스포츠이다. 일반적인 축구의 형태와는 차이점이 있으며 축구의 유사 종목 중 그 기원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전해지고 있는 풋살과는 달리, 기원과 발전과정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다만 브라질의 해변에서 하나의 놀이로 성행하다가 점차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는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 브라질을 중심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배경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어떤 경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지금의 FIFA 비치 사커 월드컵 대회가 조직되기까지의 발전 과정에 대한 부분도 다양한 접근을 통해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여름마다 부산 해운대, 영덕 고래불, 남해 은모래비치, 제주 표선, 동해 망상 등 전국의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비치 사커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또한 국가대표팀을 구성하여 국제 대회에도 참가하고 있지만 종목의 경기적 발전과는 상대적으로 비치 사커의 역사나 원리, 문화적 의미 등에 대한 기초적인 학문 분야의 발전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도입과 관련해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비치 사커가 행해졌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만, 그 도입과 확산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해지는 바가 없을 정도로 이에 관련된 학문적 인프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여러 학술검색 사이트를 통해 '비치 사커'나 '해변 축구' 관련 주제로 검색을 해 보아도 비치 사커를 주제로 한 연구는 단 한편도 찾아볼 수 없다.

유럽과 남미 등 축구 문화의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비치 사커가 하나의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비치 사커 리그가 존재할 정도

로 급속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 물론 활성화 정도에는 아직까지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비치 사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나의 스포츠가 문화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기적인 측면의 발전만이 해답은 아닐 것이다. 경기 외적인, 예컨대 지도자의 육성, 관련 용품 산업의 발전, 미디어의 관심과 함께 관련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뒷받침 되어야만 그 스포츠는 사회 속에서 하나의 스포츠 문화로서 공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비치 사커의 개념과 그 발달 과정에 드러난 문화적 배경을 규명함으로써 비치 사커에 대한 학문적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향후 추가적인 연구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비치 사커의 개념과 발달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비치 사커가 브라질에서 성행할 수 있었던 문화적 배경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해 비치 사커 및 축구와 관련된 도서, 신문기사, 인터뷰 자료, 축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 등 1, 2차 자료를 수집하여 문헌고찰의 방법을 활용할 것이며 상호주관적 논의(inter-subjective discussion)의 방법을 활용하여 서술할 것이다.

축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힘입어 향후에도 축구와 유사한 형태의 스포츠는 탄생과 소멸을 반복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스포츠는 물론 새롭게 탄생하는 종목에 대한 문화적 접근은 하나의 스포츠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학문적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체육의 인문학적 연구 주제가 더욱 풍부해 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비치 사커의 개념과 발전과정

1. 비치 사커의 개념

비치 사커(Beach Soccer)의 단어적 개념을 살펴보면 '해변 축구' 또는 '바닷가에서 즐기는 축구'로 해석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해변가에서 공을 가지고 즐기는 행위 또한 광의적인 개념으로는 비치 사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종목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단어적 의미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분석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스포츠화 된 비치 사커의 경기적 의미를 정리함으로써 생소할 수 있는 비치 사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을 갖고자 한다.

비치 사커와 협회식 축구(Association Football)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라운드 스타일이다. 즉, 잔디밭이나 맨땅 위에서 행해지는 협회식 축구와는 달리 비치 사커는 모래 사장 위에서 경기가 이루어진다. 경기장의 규격은 37m × 28m이며 골대는 2.2m × 5.5m 규격을 사용한다(FIFA 홈페이지, 2014.8.3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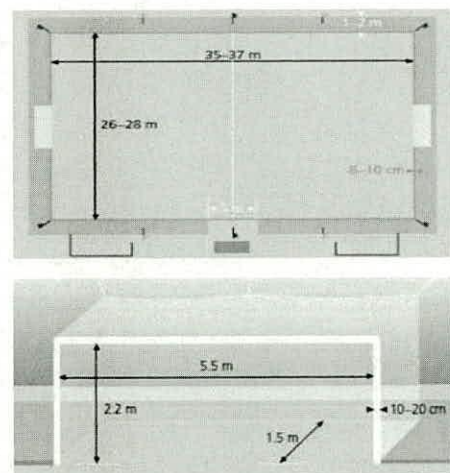


그림 1. 비치사커 경기장 및 골대 규격(FIFA 홈페이지)

또한 비치 사커는 맨발로 경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발목보호대와 갖은 장구는 착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맨발로 경기를 행한다. 그라운드 의 상황이 선수들의 움직임에 의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모래사장 위에서 맨발로 하는 경기이기에 볼에 대한 집중력과 컨트롤 능력, 강인한 체력 등이 요구된다. 경기 시간은 12분씩 3피리어드로 진행되고 선수는 골키퍼를 포함하여 5명이 경기에 참여한다. 선수교체의 제한은 따로 없으며 다만 경기 중 부적절하 행위로 인해 '블루카드(협회식 축구의 옐로우 카드와 유사한 개념)를 받으면 2분간 퇴장한다는 규칙이 있으며 이것은 핸드볼이나 아이스하키와 유사한 특성이다(FIFA 홈페이지, 2014.8.30. 검색).

이처럼 비치 사커는 협회식 축구의 기본적인 형태와 유사하면서도 나름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협회식 축구에 비해 작은 경기장, 짧은 경기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골이 터지는 박진감 있는 경기이며 모래사장 위에서 맨발로 하는 경기의 특성 상 선수들의 볼 감각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비치 사커를 통해 축구의 기본 기술과 신체 능력을 발전시켜 온 선수들이 많다. 현란한 드리블과 감각적인 발재간을 보여 준 호나우디뉴(Ronaldo de Assis Moreira, 1980-)는 어린 시절부터 비치 사커를 즐겼다고 한다(스포츠조선, 2009.12.11). 1994년 미국 월드컵의 스타 호마리오(Romario de Souza Faria, 1966-)는 1985년에 프로선수로 데뷔했는데 무려 25년 동안이나 필드를 누빌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비치 사커를 통한 자기 관리를 꼽았다(베스트일레븐, 2010. 10.21). 또한 그는 2005년에 39살의 나이로 브라질의 비치 사커 월드컵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대회에 참가하였다(연합뉴스, 2005.3.23.). 이 외에도 많은 브라질의 축구 선수들이 어린 시절부터 비치 사커

를 즐겨왔다고 알려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비치 사커는 경기화 되기 이전부터 브라질 축구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2. 비치 사커의 발전과정

비치 사커와 관련된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를 관장하는 기구는 FIFA와 BSW(Beach Soccer World wide)이다. 현재의 비치 사커 월드컵대회는 2005년부터 FIFA가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BSW가 FIFA의 지원을 받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세계선수권대회의 형식으로 개최해 왔다(BSW홈페이지, 2014.8.1. 검색).

협회식 축구와는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비치 사커의 독특한 규칙이 정해진 것은 1992년 미국 LA에서였다. 그 전까지는 단순히 오락적인 목적으로 비치 사커를 행하였기 때문에 통일된 규칙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1992년 LA에 모인 BSW의 창립파트너)들에 의해 시범경기가 열렸고 각각 다른 비치 사커의 형식을 통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3년에 최초의 비치 사커 프로대회가 마이애미 해변에서 개최되었고 이 대회에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등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그리고 1994년 4월에는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 있는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비치 사커 경기가 개최되었는데 이것이 TV를 통해 방송된 최초의 비치 사커 대회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5년에 최초의 비치 사커 월드컵 세계선수권 대회(Beach Soccer World Championship)가 이곳에서 개최되었다(FIFA홈페이지, 2014.8.30. 검색).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비치 사커는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후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다.

1) 당시 BSW의 공동창립자들이 누구였는지는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1995년부터 개최된 비치 사커 세계선수권 대회는 BSW의 지원 아래 10여 년 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경기화 된 비치 사커가 생소한 스포츠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수많은 비치 사커 리그가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FIFA와 BSW가 주관하는 국제규모의 비치 사커 경기로는 Beach Soccer World Cup, Pro Beach Soccer Tour, Intercontinental Cup, Asian Beach Games, European Games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각 대륙별로는 다음과 같은 리그와 대회가 존재한다.

Asia	AFC - Championship
Africa	CAF - Championship
North America Central America and Caribbean	CONCACAF - Championship
South America	CONMEBOL - Championship
Oceania	OFC - Championship
Europe	UEFA - Championship · Cup · League · Winners Cup



그림 2 전 세계 비치 사커의 현황(위키백과, 2014.8.3. 검색)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는 FIFA가 주관하는 Beach Soccer World Cup이 가장 권위 있는 경기로 인식되고 있지만 FIFA가 비치 사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년에 불과하다. 2005년 이전까지는 BSW가 주관하는 비치 사커 세계선수권 대회가 전 세계의 비치 사커 선수들이 갈망하는 꿈의 무대였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개최된 이 대회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팀은 비치 사커의 종주국이라 일컬어지는 브라질이었다. 총 10회의 대회 중 2001년을 제외하고 무려 9번이나 정상에 올랐을 만큼 브라질은 협회식 축구뿐만 아니라 비치 사커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세계 정상의 팀이었다.

표 1. 비치 사커 세계선수권 대회 현황(1995-2004) (FIFA 홈페이지, 2014.8.30. 검색)

구분	개최장소	1위	2위	3위
1995	Copacabana Beach	BRA	USA	POR
1996	"	BRA	URU	ITA
1997	"	BRA	URU	USA
1998	"	BRA	FRA	URU
1999	"	BRA	POR	URU
2000	Marina da Gloria	BRA	PER	ESP
2001	Costa do Sauipe	POR	FRA	ARG
2002	Vitoria & Guaruja	BRA	POR	URU
2003	Copacabana Beach	BRA	ESP	POR
2004	"	BRA	ESP	POR

위 표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개최된 비치 사커 세계선수권 대회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개최 장소는 10회 모두 리오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의 코파카바나 해변(Copacabana Beach)을 비롯하여 바이아(Bahia), 산토스(Espirito Santos), 상파울루(Sao Paulo) 등 브라질의 해변으로 비치 사커의 발생지로 여겨지는 브라질 해변의 상징성을 대변한다. 또한 대회 결과를 통해서도 비치 사커에 있어서 브라질이 얼마나 세계적인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대회를 10회 연속으로 개최할 만큼 그에 관련된 인프라 및 국민적 관심이 발달되어 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 '골프 금지령'이나 '축구 금지령'이 존재했다는 것을 통해 당시의 영국에서 얼마만큼 골프나 축구가 성행 했는가를 유추할 수 있으며 그것이 경기화 된 골프와 축구의 발생이 영국이었다는 것을 대변하는 하나의 사료가 되는 것처럼(하남길, 2010), 비치 사커에 있어서 전 세계 최고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브라질은 오랜 세월 동안 비치 사커와 관련된 문화적 요소가 독보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것이 비치 사커의 발생을 대변해 주는 하나의 문화현상학적 사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비치 사커의 문화적 배경

비치 사커(Beach Soccer)는 말 그대로 '해변 축구'를 의미한다. 바닷가의 모래사장 위에서 공을 가지고 하는 놀이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바닷가에서 볼을 가지고 발로 치는 행동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비치 사커라면 과연 그 시작이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 바다가 있는 전 세계의 어디에서나 오래 전부터 즐겨오던 놀이인 것이 아닐까?

이러한 질문에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결국 인간의 본능적인 움직임에서 시작되었고 그 행위는 인종이나 민족, 종교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축구의 기원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도 예외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비치 사커의 기원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고에서는 발생의 발자취를 찾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비치 사커의 종주국이라 일컬어지는 브라질에서 그것이 발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제한된 사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종목의 기원을 연구함에 있어 다양한 가능성의 담론을 통해 학술적으로 가장 납득할 만한 결론을 찾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브라질의 축구 문화와 비치 사커

먼저 브라질의 축구 문화에 대한 측면이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4강에서 브라질이 독일에게 1:7의 처참한 패배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사람

은 극히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현대 축구를 상징하는 국가들 중 하나이며 FIFA 월드컵 최다 우승국(5회)의 면모를 자랑해 왔다. 최근 들어 스페인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클럽 축구가 강세를 보이면서 브라질을 위협해 왔지만, 국가대항전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브라질이 우승후보에서 밀려나 본적이 없을 정도였다. 그만큼 '브라질=축구'라는 등식의 성립에 이견이 없을 만큼 브라질은 축구의 나라이다. 그리고 그 바탕은 바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이다.

2013년의 통계를 기준으로 브라질에는 1부 리그 축구팀이 20개, 2부 리그 20개, 3부 리그 21개, 4부 리그 40개, 여자 리그 20개 팀이 1년 내내 리그를 펼치고 있다.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축구 클럽이 29,208개이고 등록 선수는 약 2백 10만 명에 이르며 비 등록 선수는 약 1천 1백 20만 명, 전국에 축구장은 661개가 존재한다(김영철, 2013).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브라질이 이러한 규모의 인프라를 형성하기까지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가 작용했을 것이다.

브라질에 처음으로 축구, 다시 말해 지금의 협회식 축구(Association Football)가 보급된 것은 19세기 후반이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 선원들에 의해 북동쪽 해안(포르탈레자, 나타우, 헤시피부근)의 백사장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네이버 캐스트, 2014.8.25. 검색). 브라질의 축구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영국 이주민 2세인 찰스 밀러(Charles William Miller, 1874-1953)이며 그는 영국에 유학을 다녀오면서 축구공을 가지고 왔다고 전해진다. 상파울로에서 철도 공사를 하던 그의 아버지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1884년 영국 사우샘프턴의 배니스터라는 학교로 유학을 보냈다(위키 백과, 2014.8.24. 검색). 당시 영국의 학교는 강건한 기독교주의(Muscular Christianity) 사조 아

래 각종 스포츠가 도입되어 활성화 되어가고 있었고(하남길·조명래, 1998; 하남길, 2010) 찰스 밀러는 10여 년의 유학생생활 동안 축구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찰스 밀러(BBC, 2013.10.17)

1894년 2월 18일을 브라질 근대 축구가 시작된 날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찰스 밀러가 10여년의 영국 유학을 마치고 축구공 2개와 축구 규정집을 가지고 돌아온 날이기 때문이다(한겨레신문, 2014.6.13.: SHO'w, 2006). 상파울로도 돌아 온 찰스 밀러는 '상파울로AC'라는 축구팀에서 활약했으며 현재까지도 상파울로 리그에 포함되어 있는 코린치앙스(SC Corinthians Paulista) 축구팀의 팀명을 지어 주었다고 전해진다(위키백과, 2014.8.24. 검색; BBC, 2013.10.17). 유럽 선원들과 찰스 밀러라는 인물에 의해 브라질에 전파된 축구는 이후 중주국인 영국에 버금갈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한다.

브라질 축구를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징적인 단어가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말란드루(Malandro)'이다. 사실 단어 그대로의 뜻을 살펴보면 말란드루는 포르투갈어로 '부랑자', '무뢰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 문화에서의 말란드루는 브라질 민담의 주인공으로 흑인 노예이면서 매우 낙천적이고 카포에이라(Capoeira)와 연애에 능수능란한 전설

적인 인물로 추앙받는다(네이버 캐스트, 2014.8.25. 검색). 즉, 많은 브라질리언들이 꿈꾸는 영웅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말란드루와 축구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말란드루는 흑인 노예를 상징하며 인종 차별의 시련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낙천적인 성격으로 대변된다. 즉, 이픔을 이겨내기 위해 애써 웃으며 살아가는 브라질의 흑인들, 다른 말로 몰라토(Mulatto: 흑인과 백인의 혼혈인종)들의 애환을 나타내는 인물이다. 여기에서 축구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데 축구가 브라질에 전해진 초기에는 흑인이나 혼혈인들의 참여가 금기시 되었다. 20세기 초의 브라질 축구는 백인들의 전유물이었고 흑인이나 혼혈인들은 경기장에 들어 설 수조차 없었다. 인종적 차별이 축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다. 브라질 최초의 혼혈선수였던 아르투르 프리덴라이히(Arthur Friedenreich, 1892-1969)는 펠레 시대 이전의 위대한 축구선수로 추앙받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혼혈 선수는 이유로 출전에 방해를 받거나 무시당하기도 했다. 또한 혼혈임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 곱슬머리를 기름을 발라서 펴고 머리 위에 망사를 쓴 상태로 경기를 치르기도 했다(KBS, 2006).



그림 4. 아르투르 프리덴라이히 (위키백과, 2014.8.20. 검색)

이처럼 축구에 있어서도 인종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에 많은 브라질 혼혈인들, 다시 말해 말란드루를 꿈꾸는 몰라토들은 축구경기장이 아닌 골목이나 바닷가의 모래사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경기장이 아닌 모래사장에서 축구를 즐기던 몰라토들이 성장하여 카포에이라와 삼바 리듬을 가미한 형태의 축구를 구사하면서 브라질의 축구는 유럽의 스타일을 벗어나 브라질만의 독특한 축구 형태를 나타내게 되었다.

길거리와 모래사장위에서 축구를 하던 몰라토들의 성장으로 브라질 축구는 '아름다움'을 형성하게 된다. 흑인들의 운동능력을 물려받은 몰라토들은 유연함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몸동작을 능숙하게 연기할 수 있었다. 브라질 축구를 문화적으로 분석하는 일부 학자들은 브라질 축구에는 흑인들의 민첩함, 심술, 잔꾀, 카포에이라, 삼바, 즉흥성, 예술성 등이 투영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Maranhao & Knijnik, 2011). 이처럼 카포에이라를 하는 듯한 움직임을 가지고 예술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브라질 축구를 보면서 우리는 '삼바축구' 또는 '삼바군단'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축구 스타일을 동경하지만 그 속에는 인종차별에 의한 몰라토들의 한이 녹아 있는 것이다.

보통의 브리질리언들처럼 많은 축구 선수들도 스스로를 말란드루라고 여긴다. 시대를 뛰어 넘는 경기력으로 예술적인 축구를 구사한 축구 황제 펠레 (Edson Arantes do Nascimento, 1940-)가 그러했고 그와 함께 세 차례의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우승으로 이끈 가린사(Manuel Francisco dos Santos, 1933-1983)와 자이르지뉴(Jair Ventura Filho, 1944-)도 그러했다. 카포에이라를 하는 것처럼 축구공을 다루면서 상대방을 속이고 질주하는 드리블, 예상을 뛰어넘는 패스 타이밍과 슈팅은 말란드루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었다(동아일보, 2014.6.14.). 위

대한 브라질 축구 선수들의 이러한 기술은 어릴 적부터 마을과 해변가의 모래사장에서 축구 선수를 꿈꾸며 차별의 아픔을 축구로 극복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이렇듯 백사장에서 유년기부터 축구를 즐기고 기술과 체력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온 선수들 중 대부분이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한 이야기를 통해 축구와 비치 사커의 밀접한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도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브라질에서 꽃을 피웠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브라질리언들은 축구에 열광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브라질을 상징하는 '삼바 축구'에는 말란드루를 꿈꾸던, 차별받는 몰라토들의 애환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낙천성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좋아하는 축구에서조차 차별을 받았지만 바닷가의 모래사장 위에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고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모래사장은 축구선수를 꿈꾸는 몰라토들에게 축구경기장이 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국가들도 비슷한 시기에 근대적인 축구가 전파되었고 대부분 학교나 마을의 운동장을 중심으로 발전된 반면(박경호, 2013; 장재훈 외, 2013; 옥광, 2005), 브라질의 경우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이 익숙하게 정착된 배경은 이처럼 인종차별에 의해 운동장을 활용할 수 없었던 몰라토들이 자신들만의 축구장으로 모래사장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브라질의 축구는 모래 위에서 발전할 수 있었고 브라질리언들에게 있어서 비치 사커는 자연스러운 문화 현상의 하나였던 것이다.

2. 지리적 측면에서 바라 본 비치 사커

브라질의 축구 분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브라질

의 축구가 모래사장 위에서 발달하게 된 배경을 살펴봤다면 이번 장에서는 브라질에서 비치 사커가 발달 할 수 있었던 배경을 환경적 요소에 따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리적 환경에 의한 비치 사커의 발전 가능성이다. 먼저 아래의 브라질 지도를 살펴보겠다.



그림 5. 브라질 지도(네이버 이미지, 2014.8.21. 검색)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동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국가이다. 국토의 면적이 무려 8,514,877km²로 남한의 약 85배에 해당하는 거대한 국토를 차지하고 있다(두산백과, 2014.8.15. 검색). 그런데 도시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기형적으로 동쪽의 해안가에 도시가 집중되어 있다. 브라질의 북부 지방은 200개의 지류와 335km에 이르는 삼각주를 이루고 있는 아마존 강이 흐르고 있으며 연평균 강수량 2,000mm, 연중 30도를 넘는 열대성 기후의 밀림이 뒤덮여 있어 전 국토의 절반에 가까운 크기임에도 도시가 발달하지 못하였다.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미개발 상태로 원주민들만이 부족별로 흩어져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반면 동부

의 해안 지방은 남북으로 흐르는 프란시스코강 유역을 중심으로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풍부한 전력자원을 바탕으로 전 국토의 1/10에 불과한 지역이지만 전체 브라질 인구의 1/3이 거주하는 지역을 형성하였다. 또한 상파울루 이남의 남부지방은 온화한 기후와 적당한 강수량,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브라질 인구의 42.5%가 거주하고 있다(두산백과, 2014. 8.19. 검색). 이처럼 브라질은 동부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주요 도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구가 해안가에 밀집되어 있다. 일찍이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선원들이 브라질의 북동부 해안 도시에 축구를 전파한 것도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스포츠를 문화의 구성 요소로 보고 전체적인 문화의 체계와 더불어 스포츠가 진화한다고 주장한 블랑차드와 체스카는 '스포츠 문화의 진화 변수'를 '생계유지, 정치·사회적 구조, 지리·생태학적 환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제시하였다(박기동, 1985). 이 중에서 지리·생태학적 환경은 스포츠가 행해지는 지역의 인구, 지형, 토지, 기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스포츠의 특성이 진화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브라질에서 비치 사커가 발달한 배경 중 하나도 결국 지리·생태학적 환경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가 대부분의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러한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전파된 축구가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행해진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따라서 비치 사커가 브라질에서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된 도시가 발달한 지리·생태학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비치 사커의 발달에 지리·생태학적인 영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치 사커의 선진국들을 살펴보더라도 확연히 나타난다. BSW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2013년의 비치 사커의 세계 랭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osition	Team
1	 Russia
2	 Spain
3	 Brazil
4	 Tahiti
5	 Argentina
6	 Iran
7	 El Salvador
8	 USA
9	 Japan
10	 Solomon Islands
11	 UAE
12	 Senegal
13	 Paraguay
14	 Italy
15	 Portugal
16	 Ukraine

그림 6. 2013 비치 사커 세계 랭킹 (BSW홈페이지, 2014.8.1. 검색)

위 그림에서 특징적인 것은 인구 13만 명의 남태평양 중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속하는 작은 섬 타히티(Tahiti)가 세계 랭킹 4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FIFA 월드컵 등 협회식 축구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던 타히티가 비치 사커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비치 사커 월드컵을 개최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이란, 엘살바도르, 세네갈, 일본, UAE, 솔로몬 제도 등 전형적인 축구 강국과는 거리가 먼 국가들이 비치 사커에 있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공통점은 섬나라이거나 모래사장이 풍부한 국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강세는 비치 사커가 지리·생태학적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스포츠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비치 사커는 모래사장이 풍부한 지역, 다시 말해 비치 사커를 즐길만한 지리·생태학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발달해 왔으며 브라질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아직까지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브라질에서 비치 사커가 기원하였다는 사료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브라질에서 비치 사커가 성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충분히 고찰할 수 있었다. 특정 종목의 기원을 밝혀가는 과정은 사료의 발견 유무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람들이 비치 사커의 발생지를 브라질이라 일컫는 것은 종주국이라 부를 만큼의 발달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해안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브라질의 지리·생태학적 특성은 비치 사커의 발생지로서 브라질이 갖는 의미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IV. 결론

현재의 비치 사커는 풋살과 더불어 협회식 축구와 유사한 스포츠로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전 세계의 8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대륙별 리그 및 비치 사커 월드컵이 개최될 만큼 또 하나의 축구 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경기적 발전에 비해 비치 사커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매우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8년 단 한차례 국제대회에 참가한 것이 전부일 만큼 경기적 부분과 더불어 학문적 영역에서도 매우 초보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치 사커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인프라의 확산과 학문적 초석 마련에 기여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비치 사커는 1992년부터 협회식 축구와는 다른 규칙을 제정하여 경기화 되었고 BSW와 FIFA의 지원 아래 세계선수권 대회와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발전을 이루어 왔다.

둘째, 비치 사커는 브라질 사회의 인종 차별에 의해 소외받던 계층인 몰라토들에 의해 행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해변에서 발전된 문화적 산물이었으며 여기에는 동부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도시들이 발달하게 된 지리·생태학적 요인도 작용하였다.

특정 종목의 기원과 발생을 규명해 가는 과정은 시대적인 사료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접근한 바와 같이 하나의 결론에 대해 그 가능성을 분석해 가는 과정은 답론의 반복을 통해 가장 용인할 수 있는 결론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에 대한 사회·문화적 분석은 스포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는 중요한 연구방법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체육의 인문학적 콘텐츠가 풍부하게 축적될 수 있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영철(2013). 브라질 몰라토 축구와 문화정체성: 1938년 월드컵을 중심으로. **포르투갈-브라질연구**, 10(3), 5-29.
- 네이버이미지. 2014년 8월 21일 검색. '브라질 지도'. <http://imagesearch.naver.com>.
- 네이버캐스트. 2014년 8월 25일 검색. 브라질 축구.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01&contents_id=19576.
- 동아일보. 2014년 6월 14일자. '브라질은 어떻게 축구의 나라가 되었나'.
- 두산백과. 2014년 8월 15일 검색. '브라질'.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5279&cid=40942&categoryId=34129>.
- 두산백과. 2014년 8월 19일 검색. '브라질의 자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78173&cid=40942&categoryId=33136>.
- 박경호(2013). **한국 축구의 발전과 이데올로기**.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박기동(1985). **스포츠 인류학**. 서울: 동문선.
- 베스트일레븐. 2010년 10월 21일자. '스타들의 뒷이야기 #2 호마리오'.
- 서강목, 이정진, 천지현 역, 데이비드 골드블라트 지음(2014). **축구의 세계사**. 서울: 실천문학사.
- 스포츠조선. 2014년 6월 21일자. '브라질월드컵 개막전, 전 세계 4억2900만 명이 지켜봤다'.
- 스포츠조선. 2009년 12월 11일자. '지난 10년 세계 최고 축구 선수는 호니우디뉴, 왜 그럴까'.
- 연합뉴스. 2005년 3월 23일자. '호마리우, 비치사커로 세계 제패 도전'.
- 옥광(2005). 영국 근대축구문화의 성장 및 세계화의 사회적 배경. **한국체육학회지**, 44(6), 43-55.
- 위키백과. 2014년 8월 3일 검색. Beach Soccer Worldwide. http://en.wikipedia.org/wiki/Beach_Soccer_Worldwide.
- 위키백과. 2014년 8월 20일 검색. 아르투르 프리덴라이히. http://ko.wikipedia.org/wiki/%EC%95%84%EB%A5%B4%ED%88%AC%EB%A5%B4_%ED%94%84%EB%A6%AC%E

- B%8D%B4%EB%9D%BC%EC%9D%B4%ED%9E%88
- 위키백과. 2014년 8월 24일 검색. 축구의 역사.
http://ko.wikipedia.org/wiki/%EC%B6%95%EA%B5%AC%EC%9D%98_%EC%97%AD%EC%82%AC.
- 장재훈, 박경호, 옥광(2013). 한국 근대 축구의 도입과 이데올로기: 1882-1910. **한국체육학회지**, 52(5), 45-55.
- 하남길, 조명래(1998). 토마스 휴즈의 체육 교육관: 「톰 브라운의 학창시절」에 나타난 스포츠의 교육적 의미. **한국체육학회지**, 37(4), 70-83.
- 하남길(2010). **체육사신론**. 진주: 경상대학교 출판부.
- 한겨레신문. 2014년 6월 13일자. '브라질 축구 오해와 진실... 해변에서 축구를 배운다?.'
- BBC. 2013년 10월 17일자. World Cup 2014: Who is the true father of football in Brazil?
- BSW 홈페이지. 2014년 8월 1일 검색. <http://www.beachsoccer.com/sport/history>.
- FIFA 홈페이지. 2014년 8월 30일 검색. <http://www.fifa.com/beachsoccerworldcup/history/index.html>.
- KBS특선다큐멘터리. 2006년 6월 11일 방송. 축구의 역사.
- Maraanhao, Tiago Fernandes & Knijnik, Jorge (2011). 'Futebol Mulato: Racial constructs in Brazilian Football'. *Cosmopolitan Civil Societie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3(2), 55-71.
- SHO'w(2006). **이것이 진짜 축구다**. 서울: 살림.